

화사해진 부대 담벼락에 지역 주민들도 '방긋'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이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와 미관 개선을 위해 군 가족과 장병들이 함께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낡고 퇴색된 부대 담벼락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화사하고 밝은 환경을 선물하기 위한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벽화 조성작업은 지난 10월 13일(월)부터 11월 24일(월)까지 약 6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장병과 군 가족 약 20여 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벽화 디자인은 군가족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되었으며, 지역의 특색과 부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벽화에는 공군의 상징하는 전투기와 더불어, 한국의 미를 한껏 살린 단청과 오방색, 일월오봉도가 그려졌다. 또한 5·18 기념탑과 무등산 등 지역 상징물을 더해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벽화그리기활동에 참여한장병과군가족들이미끄러짐에채색을하고있다. 우측사진은완성된전투기벽화의모습. (사진=병장이준혁)

1전비, 민·군 상생을 위한 부대 담벼락 벽화 조성 실시 김중수 단장 "지속적인 교류·봉사로 지역 상생 위해 노력"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벽화가 그려지면서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밝고 화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벽화 조성 활동에 참여한 1전비 임재

욱 병장은 "단순한 환경 미화를 넘어, 우리 부대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중수(준장) 제1전투비행단장

은 "장병들과 군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1전비는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덕근 기자



한빛원자력본부지역봉사단체와함께 '사랑의김장나눔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한빛원자력본부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실시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7000포기 김장...소외계층에 전달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영광·고창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빛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흥농여성자원봉사대, 범성면새마을부녀회, 백수읍어머니봉사대, 군남·연산면 새마을부녀회, 불갑면청년회 등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배추김치 약 7,000

포기 김장에 나섰다. 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스레 담근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김태균 전남도지사, 지역소멸 위기 극복 공로 인정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의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 광양3, 사진)이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태균 의장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인구감소·청년유출·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종합 정책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제정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청년 창업·일자리·주거를 연계한 전남형 정착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



해 관광·통근·소비 등 실제 체류 인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전남에 도입한 점이 주목받았다.

아울러, 김 의장은 도의회·도청·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팀'을 출범시켜 인구·교육·경제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단위 정책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대상은 전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180만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의회가 되도록 더 깊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연구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염선호 기자

광주은행, 취약계층 여학생에 위생용품 전달

여직원 모임 개나리회, 핑크박스 100박스 제작해 전달



광주은행은 25일 본점에서 지역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전달할 2,000만원 상당의 '핑크박스'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광주은행이 경제적 이유로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성 청소년을 위해 '핑크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5일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 변정근 초록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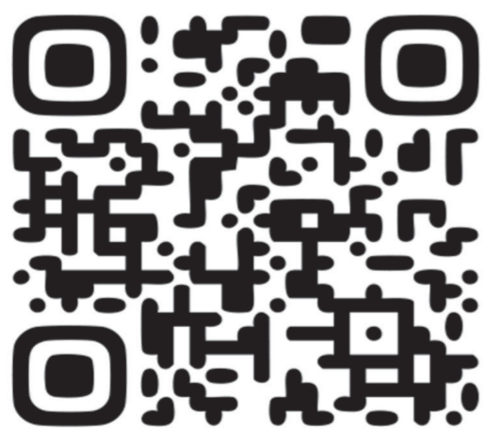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김경미 광주은행 여직원 모임 '개나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제공할 '핑크박스'(총 2천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은 2020년 시작된 광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매년 임직원이 직접 구성한 핑크박스를 지역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 역시 고병일 은행장과 개나리회 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손수 제작한 100개의 핑크박스를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1천5백만 원 상당의 '핑크박스'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ESG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한전MCS(주)·사)좋은이웃, 연탄 나눔 봉사 전개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800장 전달...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전MCS정성진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최근 사단법인 좋은이웃과함께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행사'를 실시했다.

한전MCS(주)는 사단법인 좋은이웃, 나주시와 협력하여 최근 나주시 급남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절기를 맞아 난방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MCS 봉사 임직원과 좋은이웃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나르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연탄은 금남동 내 취약계층 2가구에 각 400장씩 총 800장이 전달되었다.

한전MCS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제품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진 한전MCS 사장은 "올해로 3년째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게 돼 더욱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 소재 동막영농조합법인 '사랑의열매 희망장' 수상 영예

전남 곡성군은 관내 소재한 동막영농조합법인(대표 유장수)이 지속적인 지역 나눔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랑의열매 대상 '희망장'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막영농조합법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돌봄이웃 지원에 앞장서 왔다.

유장수 대표는 매년 연말 실시되는 '희망나눔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곡성군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백미 기탁,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집행되는 지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돌봄공동체 형성에 기여했고, 소외된 이웃들이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유장수 대표는 전남 159호이자 곡성군 7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큰 의미를 더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지역 내 고액기

부 문화 조성에 핵심적인 상징성을 가진다. 유장수 대표는 "나눔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